

최대 600mm ‘물폭탄’에 침수·폐사 곳곳 생채기…복구 ‘막막’

광주·전남 ‘극한 폭우’ 피해·복구 상황

사망 1명…실종 2명 수색작업 진행
침수·파손 등 1300여건 피해 접수
벼·콩 등 농작물 5천200ha 잠기고
가축 21만마리 폐사·양식장 피해도
시·도, 피해상황 접수 복구 신속지원

사흘간(17~20일) 광주·전남 지역에 각 최대 520~6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주택과 상가 뿐 아니라 도로까지 침수되고 논·밭의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가축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광주·전남 곳곳 생채기= 2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내린 폭우로 20일 오후 5시 기준 광주에서 1명이 숨지고 광주·전남에서 각 1명씩 총 2명이 실종됐다.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께에는 북구 금곡동에서 혼자 사는 70대 남성 A씨가 실종 사흘만인 20일 오후 2시 40분께 광주호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또 광주에서는 지난 17일 밤 10시 20분께 광주천 신안교 인근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주민이 실종됐다. 19일 오후 2시 30분께 순천시 오전동 순천만국가정원 오전그린광장 인근 동천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 1명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19일 밤 10시 기준 1311건(도로 침수 447건, 도로파손 260건, 건물침수 263건, 차량침수 124건, 수목전도 54건, 사면피해 62건)의 호우피해가 접수됐다.

추가 피해상황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1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사흘 간 전남 전역에 평균 202mm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상가 475개 동이 침수됐고 벼와 논콩 등 농작물 5228ha가 물에 잠겼다.

지역별로는 주택 침수 피해는 나주(54개동)와 함평(130개동), 담양(205동)지역 피해가 가장 컸다.

또 나주·담양·함평에서는 오리 10만 7000마리가 폐사했고 닭 11만 7000마리(담양·함평), 돼지 500마리(나주) 등 가축 21만 8000마리도 폐사했다. 뱀장어와 김 종자 양식장 등 양식장(7곳) 피해(7000만원)도 컸다.

전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 간 광양 백운산에 최고 556mm의 강수량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곡성 옥과 469.5mm, 나주 금천 458.5mm, 무안 해제 455.5mm등의 극한 강우가 내린 것으로 집계했다.

극한 호우로 전남지역 9개 도로 경사면이 유실됐고 106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제방이 붕괴돼 응급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담양 소쇄원, 순천 선암사 담장 등 문화재도 훼손됐고 양·배수장과 배수로(52곳)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광주 유일 6·25 전적지인 옛 산동교는 급류에 휩쓸린 영향으로 교각이 파손되고 일부 도로가 크게 무너졌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은 안채 뒤쪽 석축의 흙이 무너져 내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토사가 유실된 부분을 임시로 복구한 상태다.

조계산 자락에 있는 명승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은 진입로 약 10m 구간의 흩터미가 일부 흘러내려 피해 구간에 안전띠를 설치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광양시 백운산 지점에 602.5mm, 담양군 봉산면 540.5mm, 광주 527.2mm, 순천시 황전면 456.5mm 등을 기록했다.

◇복구작업 구슬땀=광주시 5개 자치구는 비가 그친 직후 수해 현장 복구 작업에 나섰다.

동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지산동, 소태동, 광주천변 등 도로에 쌓인 흩터미를 제거했으며, 21일부터는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 계림동 상당 등지에서 발생한 도로침하와 축대 붕괴 등 수리에 나설 방침이다.

각 자치구는 민가, 상가 등으로부터 피해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서구는 20일 공무원 등 53명을 투입해 화동동 서석고 일대 기초수급자 등 주택 4채와 유덕동 극락초 정문 등지에서 폐기물 배출 및 집안 정리 작업을 했다. 서창동 다스리가구백화점에서도 군인,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투입돼 수해 복구작업을 했다.

서구는 21일부터 200여명 인원을 동원해 서석고 일대 상가, 서창동 화계경로당, 유덕동 동남아파트 등지에 피해 복구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북구는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일 평균 100여명씩 인원을 투입해 신안동, 석곡동, 건국동, 중흥동 등 침수 피해 구구에 복구 지원을 한다.

광산구도 20일부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300여명을 모아 동곡동 등 주택, 상가 등지에서 부유물과 폐기물 정리, 침수 가전 정리 등을 도왔다.

남구는 별도도 피해 복구 일정을 정한 바는 없으나, 안전우려가 추가 확인돼 당직실에서 조치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조치할 방침이다.

농협도 수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협전남본부는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 100세트를 긴급히 전달한 데 이어 21일부터 시설하우스 등 피해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작업 일손 돕기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전남본부는 또 집중호우 이후 신속한 방제 활동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여영현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담양·장성·나주 등을 찾아 재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신고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우대 금리 및 이자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광주시 북구 신안교 인근 주택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김 총리는 관계자들과 함께 침수 원인과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민석 총리, 신안동 피해현장 방문 “위기 수습에 역량 총동원”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침수방지 저지대 정비 등 대책 건의

극한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광주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광주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위기 수습에 모든 역량 총동원하고 지역 실정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했다. 신안교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한 신안철교 재가설과 하천폭 확대를 통한 저지대 정비 등

항구적 대책 마련 등도 건의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북구 신안교 일원과 용강동 하신마을 등을 방문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대처 상황 등을 살폈다. 이 자리에는 강 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도 함께 했다.

강 시장은 김 총리에게 “기후적인 폭우로 광주 전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신안교 일대의 반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항구적 재해예방시설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

명했다.

김 국무총리는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재난지역선 포 등 당장의 피해를 지원하고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이날 광주 침수피해지역을 찾아 집계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북구를 포함한 피해가 심각한 전국 5개 시군구를 선정해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행안부 관계자는 1박 2일 일정으로 침수 피해가 심한 마을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리며 직접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오늘은 출생 연도 끝자리 1·6

오전 9시~오후 6시 온·오프라인
신청 첫주 21~25일 요일제 운영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정 정 공 고

본지 2025년 7월 17일자 게재된 (주)아이엠개발과 (주)비엔에이치이앤씨의 분할합병공고 중, 공고인 "주식회사 비엔에이치이앤씨"를 "주식회사 비엔에이치이앤씨"로 정정 공고함.

문고 제 2025-1호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 신고 공고

노인요양시설 전희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였던 무연고 어르신이 사망하여 장제하리를 하고 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연금 생활보장부 제2호, 민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이 공고하오니 아예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참조하시어 법적 상속인은 기간내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망자의 유류품 현황
·성명 : 이미자
·생년월일 : 1945.04.05
·본적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팔판리 77-15
·임소권 주소지 : 전남 해남군 복일면 중촌리 354
·입소일자 : 2012.07.30
·사망일, 사망 장소 : 2025.05.24 해남우리종합병원
·유류품 : 통장

나. 공고기간 : 2025.07.21 ~ 2025.10.20 (3개월)
다. 구비서류 : 호적등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라. 신고장소 : 전남해남군해남읍팔판리 77-15 전희노인요양원 전화 (061) 533-9321 담당자 백병모

2025년 7월 21일
전희노인요양원장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동 권 266-1920 ·문 화 266-1990 ·북광주 525-3761
·신 인 222-9171 ·영 선 571-7959 ·오 치 266-7801
·동 통 433-1503 ·우 선 433-1503

동 구
·남 광 673-9836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동 양 222-9054 ·동 정 222-9171

남 구
·남 부 673-9836 ·백 은 651-1833 ·봉 성 673-6836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8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동 안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철 천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선 944-0444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